



서원주 성당

설립 일. 2018. 8. 16.
주보성인. 성 로코

2024년 12월 1일
대림 제1주일

제1독서

예레 33,14-16

제2독서

1테살 3,12-4,2

복음

루카 21,25-28,34-36



들빛바로가기

www.wjeatholic.or.kr

화답송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첫 사랑을 그리워하며



박 승 용 요한세례자 신부 / 이탈리아 유학

대림 1주일은 늘 설레고 희망찬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에 찬 기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림이라는 말에는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종말론적 의미와 이제 곧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두 의미를 묵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림시기를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대림시기는 첫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신학생 시절 동료 신학생들과 수다를 떨기 위해 늘 찾았던 곳이 바로 커피 자판기였습니다. 동전이 없으면 빌리기도 하고 커피 한잔으로 나누어 먹기도 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판기 위에 누군가 동전을 놓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판기에 천 원을 넣고 커피 한잔을 뽑고 나면, 남은 동전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남겨 놓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그들을 자판기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덕분에 공짜 커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올려놓고 간 동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자판기 위에 동전이 수북이 쌓여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앞사람처럼 동전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마음씨 착한 신학생들은 자판기가 무거워 망가질까 부지런히 동전을 빼먹었지요. 그러나 자판기의 천사들은 한 달이 못 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도 나도 빼먹기만 했으니 남아있을 리가 없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판기 위에 손을 넣고 아무리 뒤져봐도 십 원짜리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판기의 천사를 자취를 감추었지요. 어언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또다시 자판기의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누군가 동전 3개를 올려 두었는데, 신학생들이 너도 나도 자판기에 동전을 올려두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자판기 천사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판기 위 동전들은 수북이 쌓여갔지요.

저는 이 동전을 보면서 마치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곧 신앙인의 모습과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신학생이 놓아둔 동전을 바라보면서 다른 신학생들은 형제의 사

랑에 감화를 받고 너도 나도 동전을 올려둡니다. 그러나 동전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누군가가 처음으로 동전을 올려두기 전까지 신학생들은 동전을 올려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십 원짜리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사랑을 보여준다면 너도 나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그 첫사랑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사랑을 잊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고, 그 첫사랑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매년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이 자판기에 첫 번째로 동전을 올려 두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고 지냈던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에 기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불태워 주게 합니다. 하느님을 몰랐던 이들도 세례성사를 통해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합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셨던 분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자판기 위에 동전을 올려두기 시작하셨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은 다시금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워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곧 회개와 기도라는 두 단어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깨어 기다리는 것. 그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느님을 외면하고 망각하는 삶이 아니라, 늘 첫사랑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늘 그분의 체취를 그리워하는 삶입니다. 대림 1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외면했던 하느님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 사랑을 시작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의 시기가 더욱더 풍요롭기를 기도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라.”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외적, 내적 새 성전을 만들어가는 서원주 본당!”

서원주 본당 공동체는 2018년 8월 15일 학성동 본당으로부터 분할되어 교구 내 53번째 본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서원주 본당의 뿌리는 학성동 본당 신평 공소에서 시작하는데, 1969년 공 도마 신부님과 8명의 교우들이 함께 미사를 봉헌한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이후 1979년 이영희 막달레나 자매의 꿈에 꽃송이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 느티나무 밑에 약 200평의 자갈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밭의 주인과 합의하여 1년에 쌀 한 가마니씩 주기로 하고 임대를 받아, 학성동 본당 사제관을 철거한 자재와 기와, 그리고 블록과 인건비를 지원받아 1979년 4월경에 20평의 공소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당시 신자 수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정면 신평리, 가곡리 일대에 기업도시가 형성되면서 제2 영동고속도로 기반조성으로 공소 터가 수용되었고, 정부보상을 받아 현 서원주 본당의 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학성동 본당 김성훈 스테파노 신부님의 도움으로 신평 공소를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여 신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자 수는 35명이었습니다. 더구나 은퇴하신 고(故) 이학근 베네딕도 신부님의 배려로 매주 미사성제를 봉헌하는 은총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도시 내 아파트 신축과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2017년 신자 수가 70여 명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염원으로 2018년 마침내 꿈에 그리던 본당 공동체로 승격될 수 있었습니다. 서원주 본당으로 이름 지어졌고, 간현 공소와 월송 공소도 같이 편입됩니다.

서원주 본당 초대 주임 신부로 이진희 미카엘 신부님이 부임하여, 신평공소 시절부터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본당 주보 성인을 로코 성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우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교세는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구장이신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의 도움으로 기업도시 내 새 성전부지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서원주 성당

제2대 주임 신부로 현 성호영 다니엘 신부님이 부임하였고, 성전건립을 위한 지향으로 매월 마지막 주일에 새 성전 예정부지에서 야외 미사를 드리면서 전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전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교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톨톨 뭉쳐 옥수수과 고구마를 직접 재배 수확,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봉헌하였습니다.



▲ 서원주 성당 야외미사



▲ 기도학교 1박2일 피정



▲ 성모의 밤 행사

2023년 11월 4일~5일에는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에서 전 교우 1박2일 피정으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는 ‘님의길’ 걷기 순례, 부활절 옷놀이, 로사리오의 밤과 작은 가을 음악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단체들(사도회, 전례부, 울뜨레야, 연령회, 구역부, 레지오, 청소년분과위 등)도 조직되면서 본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중입니다.

서원주 본당 신부님과 전 교우들은 외적인 새 성전뿐만 아니라 내적인 새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기도와 봉사를 통한 헌신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며, 원주에서 가장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성당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로마 5,17)

+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교우, 수도자, 사제 여러분!

우리는 희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25년을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로 희년을 선포하였습니다. 한편 1965년 3월 22일에 설립된 우리 원주교구는 올해 6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많고 큰 은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총”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은총을 받았다.” “하느님의 은총을 기도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등등. 자주 사용되는 이 용어는 교회 용어로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여러 히브리어 단어를 통하여 하느님의 “호의”, “성실성”, “정의”, “불쌍히 여기심” 등으로 은총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애(호의)를 베푸시어, 전옥의 눈에 들게 해 주셨다.”(창세 39,21), “나리께서는 이제껏 저에게 하신 것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어(성실하심으로)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창세 19,19), “나는 동정심(불쌍히 여기심)을 가지고 돌아왔다.”(즈카 1,16), “보라, 임금이 정의로 통치하고 제후들이 공정으로 다스리리라.”(이사 32,1)

신약성경도 은총을 뜻하는 그리스어 *Xapis(karis)*는 그 동사 *καίρομαι: kairomai*가 ‘기뻐하다’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Xapis*는 기쁨을 주는 상태, 매력, 호의, 공감, 친절, 선물 혹은 감사, 선한 기쁨, 선의와 상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Xapis*)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요한 1,14),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Xapis*)를 받았다.”(루카 1,30)

그러므로 “은총”이란 하느님께서 인간의 어떤 업적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무조건적으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원주교구는 지난 60년간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장했습니다. 원주교구 역사는 지학순 다니엘 주교님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지 주교님은 아주 작은 규모로 교구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본당 13개, 신자 13,390명, 사제 20명

(방인 사제 9명, 콜롬바노회 사제 11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본당 54개, 신자 80,894명, 사제 123명으로 성장했습니다.(2023년 통계) 그동안 많은 사제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많은 성당들이 건축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성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혼인을 축복받았으며, 거룩한 미사를 통하여 주님의 성체로 영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테이아르 드 샤르댕 신부님은 ‘무(無)’에서 ‘유(有)’가 되는 것은 커다란 기적의 하나라 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100여 년 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큰 은총입니다. 둘째, 우리는 인간입니다. 불교에서도 후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전생에 커다란 선업(善業)을 쌓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성자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하느님의 육화(肉化)라고도 말하는 하느님의 강생(降生)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셋째,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일은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해 말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어느 시인이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알고, 주변의 지인이 건넌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선생님은 믿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속으로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고 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지, 신앙이 얼마나 지랄 같은지!” 분명 믿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인의 말에는 ‘우리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모릅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것처럼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덕목입니다. 더욱이 신앙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역시 하느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희노애락

(喜怒哀樂)으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의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 픽처]라는 소설은 주인공 뉴욕 월가의 변호사 벤이 사람을 죽이고, 아내와 자녀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괴로운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 말미에 주인공의 회한이 담긴 독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계곡을 바라다보며 내가 농담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에 젖어 들곤 한다. 가끔 밤이면 계리의 지하실에서 사체를 절단하는 광경이 계속 떠오르기도 한다. 그때 와인병을 손에 쥐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생각해 보기도 한다.” 그 주인공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때로는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간 시절의 고통과 시련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가로 찬송가로 노래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총(Amazing Grace)”입니다. 성공회 사제 존 뉴턴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여 만든 가사를 이미 존재하는 곡조에 맞추어 부르게 된 성가입니다. 불쌍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한때 눈멀었으나 볼 수 있게 된 것, 내 마음에 두려움을 거두어 주신 것, 많은 역경을 거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며,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놀라운 은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구설정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리고 교황님이 선포한 희년을 맞이하여, 좋은 생각,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합시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은총을 기도합니다.

2024년 대림 첫 주일에



천주교 원주교구장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교구장 동정



12월 1일(주일) 사목방문(황둔 성당)
2일(월)~9일(월) 대품 피정 지도(기도학교)

축하드립니다

영명일 12월 3일(화) 박순신, 이은빈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
7일(토)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
수품일 12월 5일(목) 김효영, 김영웅, 강두영 신부
6일(금) 성원경, 이민호, 박승용, 박정원, 구희륜, 김정현, 이은빈 신부
7일(토) 김성훈, 이규영, 정인준, 이태섭, 전봉환, 이진규, 김재훈 신부



2024년 사제서품

[12월 12일(목) 14시, 배론성지 대성당]

거룩한 사제로 불리움 받은 이들이 주님다운 착한 목자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사제서품 전 9일기도에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 서품 대상자 」



박진현 대철베드로(서원주)



원종권 판다노(봉산동)



이름 프란치스코(배론)



최현덕 요셉(구곡)

서품 대상자 피정

- 12월 1일(주일) ~ 9일(월)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사제 서품 전 9일기도

- 12월 3일(화) ~ 11일(수)

- 기도지향 -

- . 12월 3일(화) : 사제서품 대상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 12월 4일(수) : 성소후원회 회원들을 위하여
- . 12월 5일(목) : 원주교구 신학생들을 위하여
- . 12월 6일(금) : 원주교구 사제·수도자들을 위하여
- . 12월 7일(토) : 예비 신학생들을 위하여
- . 12월 8일(일) : 예비 수도자들을 위하여
- . 12월 9일(월) : 유학중인 사제·신학생들을 위하여
- . 12월 10일(화) : 사제서품 대상자들의 가족을 위하여
- . 12월 11일(수) : 사제서품 대상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2025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피정 일정 안내

● 신청형 피정 - 신청형 피정은 모두 선착순입니다.

▶ 피정비 2박3일 : 16만원(후원회원 8만원)

▶ 피정 신청 및 문의 043-651-4563

▶ 매일 11시 순례자 미사 (연중무휴)

▶ 자원봉사 후원회 모집 T.043-651-4564 M.010-7613-4564

2024년 12월 기획피정		12월 20일(금)~22일(주일) / 이효성 리노 주교(수원교구)	
날짜	강사	날짜	강사
1월 17일(금)~19일(주일)	신우식 토마스 신부님, 원주교구	7월 18일(금)~20일(주일)	신호철 비오 주교님, 부산교구
2월 14일(금)~16일(주일)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 전주교구	8월 22일(금)~24일(주일)	이주형 세례자요한 신부님, 서울대교구
3월 14일(목)~16일(주일)	서상범 티토 신부님, 군중교구	9월 19일(금)~21일(주일)	배영호 베드로 신부님, 수원교구
4월 17일(금)~20일(주일)	성주간 피정(3박4일), 기도학교	10월 17일(금)~18일(주일)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 마산교구
5월 16일(금)~18일(주일)	전현호 실베스테르 신부님, 대구대교구	11월 14일(금)~16일(주일)	신현만 시몬 신부님, 원주교구
6월 20일(금)~22일(주일)	정남진 안드레아 신부님, 원주교구	12월 19일(금)~21일(주일)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원주교구

바른 한의원

바른치료 · 빠른치료
유경철(요셉) 신장숙(루시아)
T.043-642-8585
제천 중앙시장 1층 다동

임마누엘 가톨릭결혼정보

이 수산나
50년 전통 최고의 성혼를
신앙을 바탕으로 최고의 만남을 주선
부모님 상담 환영/늦은 초혼·재혼 전문
T.02-757-3343
명동성당앞 태흥빌딩808호

3H 지압침대 원주무실센터

신순남(세라피나), 강일성(요셉)
목, 척추교정 및 허리디스크에 좋은
지압침대
T.033-735-3737, 010-8994-3775

연세프라임안과

이석준(미카엘), 박명호
각종 안과 수술 전문
T.033-731-2753
연세안과
현재현, 송정순(마리아나)
T.033-731-0505

상지식자재 할인마트

이희(마티아), 김향수(엘리사벳)
최저가판매 및 납품
일반고객 환영
T.033-733-5400(우산동)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2/8 성모발현지(아시아나) 545만원
3/9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460만원
3/11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4/1 산티아고 도보순례 499만원
T. 02-2281-9070 / www.cttour.org

연세민내과 의원

염동호(가브리엘), 민미심(엘리사벳)
위 대장내시경, 간·유방·갑상선 초음파
고혈압·당뇨·만성기침·만성피로 증후군
8시 진료시작(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T.033-733-7582(중앙로 86)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우명숙(글라라), 김길영(마르티노)
T.033-647-6063(강릉 임당동)
033-531-7887(동해 묵호동)

한일중기 볼보건설기계

송철희(대건안드레아), 김명옥(미리암)
볼보 중장비 정비/부품
T.043-645-0308, 010-8790-4800
충북 제천시 왕암동 998

이번 회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알아뵈도록 도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인 희망의 순례자로 변화시켜 주도록 기도합니다.

교구 알림

성서사신주관

비대면 : 12월 3일(화) 가톨릭센터(Zoom), 20시
대면 : 12월 3일(화) 태장동 성당, 10시
4일(수) 서부동 성당, 19시30분
5일(목) 횡성 성당, 20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고리신학원 재학생, 졸업생 만남의 날

때 : 12월 14일(토) 9시30분~15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대상 : 각 분당 고리신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준비물 : 미사도구, 필기도구, 개인 컵
신청 : 12월 2일(월)까지 F. 033-765-4223
- 분당 사무실에서 취합 일괄 신청
- 개별 신청은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
* 점심 식사 제공, 당일 접수 불가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미사·피정·연수

레지아 월례회의

때 : 12월 1일(주일) 13시
곳 : 원동 주교좌성당

청년 대림피정

때 : 12월 1일(주일) 15시~18시(14:30 접수)
곳 : 무실동 성당
주제 :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내용 : 희망에 관한 강의 및 작업, 나눔, 찬양, 미사
피정지도 : 성바오로딸수도회
대상 : 만 20세 이상 청년 누구나
준비물 : 미사준비, 텀블러
문의 : 청소년사목국 033-766-4228

어르신 성경공부 봉사자교육 종강미사

때 : 12월 3일(화) 13시 / 곳 : 의림동성당
문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성심회 미사

때 : 12월 3일(화) 18시30분~19시30분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교정·경찰사목 033-766-1268

교구 성령쇄신 금요기도회

때 : 12월 6일(금) 19시30분~24시 / 곳 : 구곡성당
강사 : 김성철(프란치스코) 수원교구<찬양과 함께>

주제 :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 <마태 3,17>
미사 : 안경진 스테파노 신부
문의 : 010-8919-9731

파티마 세계사도직 첫 토요일 신심미사

때 : 12월 7일(토) 9시부터
곳 : 단구동성당(미사 김현수 바오로 신부)
문의 : 회장 010-4342-3535

성서부 말씀의 봉사자 월교육

때 : 12월 7일(토) 10시 / 곳 : 가톨릭센터 202호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들빛누리후원회, 미카엘봉사자회, 멜라니아회, 성심회 합동송년미사

때 : 12월 7일(토) 11시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교정·경찰사목 033-766-1268

이주민 미사 및 한글공부

때 : 12월 8일(주일) 12시 / 곳 : 가톨릭센터 200호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제 56차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총회

때 : 12월 14일(토) 15시~15일(주일) 12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안전 : 제1호 의안 : 2024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
제2호 의안 : 2025년도 사업 및 예산 승인
제3호 의안 : 2025년 평협 협점사업
제4호 의안 : 기타 안전
대상 : 각분당 사도회장, 여성부회장,
재정 부장 등 3명 이내 교구 제단체 2명 이내
참가비 : 1인당 5만원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개인컵
명단 제출 : 12월 6일(금)까지 F. 033-765-4223
또는 ksg2475@naver.com
문의 : 010-3223-2475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역여행 열두 소예언서II
: 12.20(금)~22(일)
성경완독 : 25년 1.2(목)~10(금), 2.7(금)~15(토)
문의 :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010-3340-0201

성소모임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대상 : 40세미만 미혼여성으로
세상안에서 축성생활을 원하시는 분
문의 : 0507-1306-1505 / 카카오톡 채널

채용·모집·기타

재속 프란치스코회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관심있는 신자를 위한
모집과 안내
문의 : 삼척 형제회 010-2534-7194
제천 형제회 010-2276-6337
원주 형제회 010-4948-4943

향심기도 모임 안내

때 : 매주 목요일 14시~16시 / 곳 : 봉산동성당
대상 : 향심기도 교육을 받은 분
누구든지 처음 오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문의 : 원주교구 향심기도회 010-7278-9894

2025년 가톨릭고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과정

대상 :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원서접수 : 11월 11일(월)~2025년 2월 14일(금)
문의 :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일본 가고시마교구 주관 성지순례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3박4일
문의 : 담당신부 010-3645-9028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 1월 개강, 각 6-8주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중세), 이진현 신부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김민철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모세의 삶과 신앙. 주원준 박사
-구약으로 만나는 하느님의 여러 얼굴들. 김민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 최지원 수녀
-명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 박혜원 강사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청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2024. 행복한 겨울캠프 접수 안내’

때 : 2025년 1월 3일~5일(2박3일)
곳 : 양업고등학교 043-260-5076
대상 : 현재 중학교 1,2학년
접수 : 홈페이지 12월 17일(화) 10시~ (선착순)
회비입금 : 15만원, 접수확정 문자 후 이체

들빛상담실 이용 안내

일시 : 화, 수, 목, 금 / 14시~17시
장소 : 원주교구청 가톨릭센터 100호
지도신부 : 신헌만 사문 신부
문의 : 010-5738-2032(문자예약 가능)

(주)알렉스분석시험소 김만기(막시밀리안노블베), 황병훈(유스토) 국제공인시험기관 분야 : 폐기물 (PCBs), 수질, 생태독성,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건축자재방출시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청정로 80-1 T.033-744-2817 / www.alexlab.co.kr	세신종합주방 할인마트 김종운(도마) 업소용 주방기구설비 제작전문 가정용 그릇, 관공서, 닥트 T.033-734-6060, 010-8793-5174 원주시 천사로 258(학성동)	서울미소플란트치과 국태성(안토니오), 강로사(로사) 서울대 치과병원 전문의 진료 임플란트, 충치치료, 잇몸치료 T.043-651-2275 제천 용두천로 86(보령약국 건물) 3층	영웅앵글 함정선(말가리다) 조삼천(바오로) 조립식앵글선반/창고공장퍼펙트랙설치 T.033-742-9493 원주시 평원로 106(학성동 331-3)	(주)강원도로마이트광산 김성배(프란치스코), 정찬아(글라라) 고토비료, 골재, 부순모래, 조정석 T.033-762-5252~5
법무사 전두표 사무소 전두표(바오로), 여성자(로사) 등기, 민사, 호적, 법률상담 T.033-344-3888, 2888 (황성군청 앞)	파리바게뜨 무실세영점 단팻빵, 크림빵, 케익 등 베이커리 일체. 단체주문 환영 장금자(데레사) T.033-745-8230, 010-5225-9861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안내 2/12 3대 성모님발현지 12일 495 2/24 이집트일주 14일 530만원 3/3 터키, 그리스 11일 초특가 385 3/09 포르투갈일주 9일 299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 대표 : 유재구 요한 02-778-8565	최경훈 내과(심장클리닉) 최경훈(마르코), 한숙자(헬레나) 고혈압 · 심혈관 질환 전문 대학병원급 심초음파 전문 장비 보유 24시간, 72시간 심전도 검사 24시간 열동열암, 동맥경화검사 T. 033-742-7400 원주세브란스병원 앞	